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5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3. 연구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비교했을 때, 기표소 방법이 민감한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더 깊고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지역 공동체의 가장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답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제시됐다.
5. 기표소 방법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6. 지역 공동체로부터 기표소 방법이 자신들의 걱정이나 염려를 털어놓기 위한 안전한 장소로 인정받았다.
7. 부모는 개인 설문보다는 기표소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에 더 안심하고 아동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한 기표소 방법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으며, 여기에서 얻은 피드백은 CMS가 앞으로 맡게 될 연구에서도 언급될 것이다.

자료제공: Ms Urvashi Wattal (CMS) and Dr Angela Chaudhuri (Swasti-Health Resource Center), India.

사례연구 18: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장애 아동 인터뷰하기

연구배경: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전통적으로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장애 아동의 실질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장애 아동 연구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방식은 종종 장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비롯됐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참여 연구가 확대되면서, 해당 연구는 장애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장애 아동과의 인터뷰를 계획할 때 부모의 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싶거나 아동의 안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신뢰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참석을 원할 수 있다. 연구자 또한 아동을 안심시키거나 아동이 선호하는 소통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의 인터뷰 참석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도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서 부모의 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비장애 아동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 아동의 생각이 부모의 의견과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감시 없이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 사례연구는 북아일랜드의 지적 장애 아동들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조항을 조사한 연구에서 얻은 것이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의견을 알아내고, 그들과 가족지원 서비스 경험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었다.

윤리적 문제:

이 연구에서 3회에 걸친 가정 방문을 통해 지적 장애 아동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연구자는 아동을 방문하기 전에 연구 과정을 부모와 함께 논의했고, 몇몇 아동은 부모가 같이 있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해줬다.

연구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동이 결정을 내리되 아동이 결정을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고 설명했다. 첫 방문 때 연구자는 아동에게 혼자 인터뷰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진행하고 싶은지, 원하는 바를 물었다. 한 사례에서 아동은 연구자와 단 둘이서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부모에게 아동의 의사를 알렸고, 다음 방문 때는 아동과 단 둘이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 부모는 여전히 아동과 연구자가 있는 방에 함께 동석했다. 연구자는 부모가 이전에 아동과 둘이서만 만나기로 한 것을 잊은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아동을 모두 곤란하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다. 연구자는 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아동의 인터뷰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아동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아동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동석에 신경쓰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해도 됐다. 이 접근방식은 대립을 피하고 부모가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아동의 의견이 우선시되지 않았고, 참석한 성인이 연구 과정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터뷰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대신 연구자는 부모를 따로 불러 그들에게 연구 과정을 다시 설명해 어떠한 고민이나 생각이 있는지 상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경우는 또,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들끼리 사적으로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해 논의해 아동을 포함시키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대안은 아동과 부모가 모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아동이 부모를 배제해서 그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 원래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줬다. 어쨌든 간에, 모두 동석하는 접근방식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관련 사안을 투명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선택방법:

연구자는 아동과 부모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연구자는 조심스럽게, 협조적인 방식으로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자에게 우선순위는 아동의 의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첫 방문에서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이 선택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해 주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었다. 그러자 부모는 전문가들이 방문할 때마다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해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이 몇몇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염려될 때, 보통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다시 설명했고, 연구자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동의 의견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몇몇 질문은 대답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아동은 또한 그림, 문장, 컴퓨터 지원을 받는 기술과 기호 카드를 포함해 자신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제공됐기 때문에, 연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후에 부모는 흔쾌히 방을 나섰고, 다음 두 방문시에도 부모는 연구자가 아동과 혼자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장애 아동과 부모 사이의 힘의 관계는 가정에서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부모는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자원이자 아동의 연구 인터뷰 참여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답변을 재해석하거나 고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

- 연구자는 장애 아동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아동의 의견이 부모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가장 우선시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 성인과 아동의 의견이 충돌할 때 연구자가 내리는 결정은, 장애 아동에게 연구 과정에 대한 아동 참여의 관여도와 통제권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연구 과정에서 장애 아동이 선호하는 참여 방식은 존중돼야 한다.
- 만일 아동이 혼자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아동이나 부모가 기분이 상한다면 연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그래도 부모가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동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동석한 자리에서 아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경우, 연구자는 아동의 의견이 우선시되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 연구자가 아동을 단독으로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참고문헌

Kelly, B. (2007) Methodological issues for qualitative research involving learning disable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Theory and Practice*, 10, (1), 21-35.

Kelly, B (2005) 'Chocolate... makes you autism': impairment, disability and childhood identities. *Disability and Society*, 20, (3), 261-275.

Kelly, B., McColgan, M. & Scally, M (2000) 'A Chance to Say - Involving children who have learning disabilities in a pilot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 (2), 115 - 127.

자료제공: Dr Berni Kelly, Senior Lecturer in Social Work, Queen's University Belfast

사례연구 19: 아동 보호와 기밀 유지: 아동 폭력, 학대,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 조사

연구배경:

2008년,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국제 아동 폭력 방지 협회)는 영국의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 현황과 영향을 다루는 국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영국 사상 최초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유년 시절과 지난 1년간 경험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묻는 연구였다.

2009년에 6,196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가구조사가 진행됐다. 그 중 2,160명은 11살 미만 아동의 부모·보호자였고, 2,275명은 11-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1,761명은 18-24세의 젊은이들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nspcc.org.uk/childstudy 참고.

윤리적 문제:

대부분의 윤리적 지침은 연구자들에게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룰 때는 기밀 유지가 제한됨을 참가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NSPCC 연구는 연령에 따른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자계식 조사)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물어봐, 부모가 아동에게 한 질문이나 아동의 답변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CASI에서는 인터뷰 진행자 역시 참가자의 답변을 볼 수 없고, 참가자가 학대 경험에 대해 말했는지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뷰하는 성인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영국은 아동 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방식이 없다. 아동이 자신의 폭력과 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데 대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게 윤리적인가? 만일 아동이 당장 피해를 입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밀 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만일 기밀 유지가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한된다면, 조사의 목적과 기밀 유지의 한계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놀라게 하거나 기분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동 보호, 지원, 상담 서비스가 잘 발달된 고소득 국가에서 진행됐다. 설문조사 참가자에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연락처가 담긴 소개 책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이를 통해 부모, 아동, 그리고 청소년은 원할 경우 도움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만일 아동이나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거나 그 이상의 도움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연구팀에게 알릴 수 있는가? 도움을 청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폭력 가해자가 가정의 부모이거나 동거인일 경우,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선택방법:

상담은 아동 보호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 부모, 아동, 청소년, 학대로부터 생존한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팀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를 제한하고, 조사에서 더 많은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아동과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했다. 학대에서 벗어난 젊은 생존자들은, 관련 청소년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청소년이 지역 당국에 학대를 보고하고 싶지 않으면, 압박감을 받거나 그들의 의지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기분이 상했는지 또는 신뢰 가능한 아동 보호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와 같은 질문을 설문조사 중 중요한 지점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빨간 깃발 알림 시스템과 검토 과정이 개발됐다. 인터뷰 내용은 데이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사 중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답변들이 나올 경우, 경고의 의미를 뜻하는 빨간 깃발이 활성화됐다. 인터뷰 진행자와 가족은 경고가 언제 활성화됐는지 알 수 없었고, NSPCC 연구팀만이 이 알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빨간 깃발의 경우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시, 참가자들의 연락처는 검토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조사 응답지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과 경고, 검토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